



SPECIAL COLUMN

교육에서의 정의

정의(正義)와 교육

강영택

정의, 그리고 기독교적 정의

최근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마이클 샌델 교수의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정의란 용어는 이제 우리 사회에서 매우 익숙하게 들을 수 있는 일상화된 단어이다. 그렇다고 우리 사회가 일상생활 곳곳에서 정의를 깊이 숙고하고 실천하는 사회라고 말할 수는 없다. 오히려 상투어의 운명처럼, 정의는 이제 우리 의식 속에서 어떤 울림도 만들지 못하는 말이 되어버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의는 여전히 우리 인류가 추구해야 하는 본질적인 가치이다. 더구나 신구약 성경이 가르치는 핵심적 메시지가기도 하다.

미국의 철학자 존 롤스(John Rawls)는 정의는 사회적 기관에서 가장 중요한 덕이라고 했다. 진리가 사고체계에서 최우선적 덕목인 것처럼 말이다. 사회학자 로버트 벨라(Robert Bellah)와 그의 동료들은 『마음의 습관(Habits of the Heart)』에서 정의를 공평함(fairness)으로 정의했다. 그리고 정의의 세 가지 종류를 제시했다. 첫째 과정적 정의는 사회가 운영되는 규

칙의 공평함이다. 둘째는 분배적 정의로, 보상에 대한 사회체제 즉, 재화와 기회의 분배에서의 공평함을 의미한다. 셋째는 총체적 정의로, 전체로서의 사회 제도적 질서가 얼마나 공평한가의 문제이다.

성경에서 정의는 보응적 정의(retributive justice)와 사회적 정의(social justice) 개념으로 사용된다. 보응적 정의는 주로 사법제도와 관계하는 것으로, 정당하고 올바른 판결을 핵심으로 한다. 사회적 정의 혹은 기본적 정의(primary justice)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부여하신 기본적인 권리를 누리는 것을 일컫는다. 성경에서는 보응적 정의보다 사회적 정의가 더욱 중요하게 나타난다. 그래서 구약에서 정의를 말할 때 종종 과부, 고아, 나그네, 가난한 자들과 관련하여 언급된다. 왜냐하면 그들은 당시 이스라엘에서 자신들의 기본 권리를 스스로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보호하는 것이 정의와 관계하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한 사회가 얼마나 정의로운가를 판단하는 시금석은 그 사회의 주변인(marginal people)들이 기본적인 권리



우리의 학교 교육은 높은 학업 성적 획득과 좋은 상급학교 진학을 교육목표로 삼고, 학생들은 정의를 실천할 여유가 없을 뿐 아니라, 정의에 대하여 생각해볼 기회조차 가지지 못하고 있다.

를 얼마나 누리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정의와 교육

“기독교적 교육이란 정의를 위해 정의롭게 가르치는 것이다.” - 기독교 교육학자, 철학자 월터스토프(Walterstorf)-

정의는 교육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다시 말하면, 정의는 교육의 목적인 동시에 교육 방법의 핵심 지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의를 위한 교육은 먼저 학교에서 정의롭게 교육하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혹 교실에서 교사가 정당한 권위(authority)를 내세우지 못하거나 부당한 권력(power)을 휘두르는 것은 정의롭지 못한 예이다. 또한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인간으로서 그 가치에 부합하는 존엄성을 표하지 않거나 학생들의 작업에 대해 정당한 평가를 하지 않는 것도 같은 예가 된다. 정의를 교육한다는 것은 불의(不義)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는 것이며, 정의를 추구하려는 경향성(tendency)을 계발시켜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정의를 추구하는 교육을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학생들이 다음 세 가지 책임을 다하도록 가르치는 것이다. 첫째는 사람들이 마땅히 누릴 권리를 빼앗지 않도록 가르치는 것. 둘째는 빼앗지 않을 뿐 아니라, 그들이 권리를 빼앗기지 않도록 보호할 의무를 가르치는 것. 마지막으로 만일 일이 발생했을 경우, 권리 빼앗긴 자들을 도와줄 의무를 지도록 가르치는 것이다.

한국에서의 정의와 교육

교육은 정의를 실현하는 중요한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학교 교육이 정의 구현의 수단으로

작용한다고 믿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학교는 정의가 실천되는 공간도 아닐뿐더러, 교육 목적에서조차 정의를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중고등학교 내에서 성적에 따른 학생 차별은 이미 고착화가 되었다. 성적이 우수한 소수 학생들만을 위한 특별교실과 수업은 다수 학생들에게 마땅히 누려야 하는 균등한 교육적 권리를 누리지 못하게 한다. 성적이 부진하다는 이유로 말이다. 이는 학교 내에서 정의가 실종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고등학교 간 차이 역시 심각할 정도로 벌어지고 있다. 특수목적 고등학교와 전문계고등학교(현재 특성화고로 분류)의 교육 질을 비교하면 그 차이는 현격하게 나타난다. 성적이 우수한 특목고 학생들은 대부분 양질의 교육을 받는다. 한편, 전문계고의 학생들은 학교에 따라 우수한 교육을 제공하려 노력하는 곳도 있지만 특목고의 교육과 비교할때 양질의 교육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성적이 낮고 가정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정의롭지 못한 교육 현실의 피해를 보는 셈이다.

우리의 학교 교육은 표면적으로 정의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대다수 학교들은 높은 학업 성적 획득과 좋은 상급학교 진학을 교육목표로 삼고, 이와 관련 없는 다른 것엔 관심을 쏟지 않는다. 정의는 타인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러나 현재 학교는 학생들에게 타인에 대해 관심 가질 여유를 허락하지 않는다. 오히려 사회의 소외된 자들에 대한 관심은 불필요하다고까지 느끼게 하진 않을까. 학생들은 정의를 실천할 여유가 없을 뿐 아니라, 정의에 대하여 생각해볼 기회조차 가지지 못한다. 정의는 학교 안에 있지 못하고, 교정 밖에서 배회하고 있다.

정의가 교육되지 못하므로 정의가 결핍된 학교, 나아



정의의 기반에는 사랑이 존재해야 한다. 타인의 권리를 배려하는 마음이 없으면, 정의라는 이름으로도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얘기가. 권리를 상실한 약자에 대한 관심 또한 사랑이어야 한다.

가 정의가 결핍된 사회가 된다. 오늘날 학교 교육은 안타깝게도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데 긍정적이기보다는 부정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다. 서울 명문대 졸업자들의 임금이 다른 사람들보다 20%이상 높다는 통계, 특목고나 명문대 입학생들의 사회경제적 가정 배경이 그 외 학생들에 비해 훨씬 좋다는 보도는 이제 전혀 새로울 것이 없다.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난 학생은 교육의 질이 낮은 학교를 다니고 낮은 임금의 직장을 다니며 평생을 살아갈 가능성이 큰 사회가 된 것이다. 이는 정의롭지 못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모든 사람들에게 균등한 교육적 기회를 주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권리를 빼앗기는 것이기 때문이다.

가정 배경이 학업성취도나 학력 수준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다. 세계적인 현상이기는 하나, 우리나라에서는 그 차별 정도가 너무 심하다는 데 문제가 있다. 최근 독일의 비영리기구인 베텔스만재단이 발표한 사회정의 수준에서 한국은 OECD 31개국에서 25위를 차지했다. 터키, 칠레, 멕시

코 등이 한국보다 아래였다. 한국은 사회정의 지표 가운데 사회적 결속력과 차별, 빈곤예방, 세대 사이의 공평성, 교육기회 등에서 OECD 평균 이하였다.

정의를 위한 교육

정의는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본질적인 가치다. 이것이 결핍된 사회는 많은 문제를 야기하여 결국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로막는다. 이런 면에서 중요한 사회공기관인 학교는 정의를 교육 목적으로 재설정해야 한다. 특히 기독교학교와 교회에서의 교육은 더욱 그렇다. 정의가 성경의 핵심적인 메시지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기독교) 학교와 교회는 어떻게 정의를 위한 교육을 할 것인가? 이와 관련 네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보도록 하겠다.

첫째, 사람들에게 정의를 실천하는 경향성을 개발시키는 것이다. 기독교 지식의 중요한 특성은 실천에 있다. 학교나 교회에서 정의에 대해 배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말이다. 작은 실천으

로 이어지도록 교육하여 정의에 대한 경향성을 갖게 해야 한다.

둘째, 타인에 대한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정의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불의로 인한 희생자들에 대한 공감이 필요하다. 직간접적으로 희생자들의 얼굴을 보고 목소리를 들을 때 그들의 고통에 공감하게 된다. 그러므로 (기독교)학교와 교회는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아픔에 공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셋째, 비판적인 분별에 기초하여 사회질서를 개혁하기 위해 노력하게 하는 것이다. 정의의 구현은 개인적인 실천과 더불어 사회질서의 개혁으로 나아가야 한다. 현대 사회에서 생존권, 교육권, 취업권 등의 권리는 개인 문제일 뿐 아니라 사회구조적인 문제임을 분별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현 학교체제에서 실패하여 교육적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학생이 있다고 치자. 이 때 고통당하는 그 학생을 위로하고 다시 일어서도록 돕는 것은 개인 차원에서 정의를 실천하는 일이다. 동시에 사회구조적으로는 경쟁이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실패한 자에게 재도전 기회를 제공하는 학교체제를 만드는 것이 포함될 수 있다.

넷째, 정의의 기반에 사랑이 존재하도록 해야 한다. 정의는 권리 주장과 보호 관련, 다수 사람들 사이에서 그 이해가 달리 나타날 수 있다. 타인의 권리를 배려하는 마음이 없으면, 정의라는 이름으로도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얘기다. 권리를 상실한 약자에 대한 관심 기반 역시 사랑이어야 한다. 혹 다른 것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면, 정의를 추구한다 하면서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롬(정의와



경쟁이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실패한 자에게 재도전 기회를 제공하는 학교체제를 만드는 것이 사회구조적 정의구현이다.

평화)의 회복을 주기 위해 십자가라는 사랑의 방법을 택하셨음을 기억해야 한다.



강영택 현재 우석대학교 교육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미시간주립대학에서 교육행정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교육공동체, 기독교학교,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 등에 관심을 갖고 연구하고 있으며, 『고통의 교육에서 희망의 교육으로』 외 다수의 저술이 있다.